

꿈과 계시

2016, 6, 12 일요일
영원하신 창조주께 성결!

**로이 램키에 의해 출판된
제닝 소트롱의 꿈과 계시
안식일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계명과
예수의 믿음을 지키는
빌라델비아 교회, “남은 무리”
예수의 믿음 : 예언의 신**

영원하신 창조주께 성결!

No. 1 꿈과 계시

1) 제가 젊었을 때, 저는 많은 꿈들과 계시들을 받았습니다. 저는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교제를 하여 우리는 하나가 될 정도였습니다.

2) 제 기억 속에 남아 저의 매일의 생애에 간직하는 한 계시가 있습니다. 그것은 저를 격려해주며 믿음의 싸움에서 제게 힘을 주니,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.

계시

3) **유리 바다 위의**

144000.

4) 저는 계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.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여기에서의 모든 의식이 사라졌습니다. 저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보았는데, 그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전해주는 파도를 일으키며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.

5) 제가 몇 분 동안 이 유리 바다 계시를 보고 있었을 때,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많은 무리가 이 바다 위 얼마간 떨어진 곳에서 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.

6) 점점 그 무리가 제 눈에 잘 보였습니다. 그 계

사에서 그것이 제게 이제 가까워져서, 제 앞에 있었습니다.

7) 이 무리는 그들의 종려나무 가지들을 흔들고 있었고 그들의 가슴에서 그들의 음성이 나오고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. 그들은 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.

8) 저는 그들의 옷이 흰 것을 보았는데, 예수님의 옷처럼 눈부시게 희고 흠없이 정결하였습니다.

9) 제가 이 사람들을 바라보니, 그들의 얼굴에 있는 것은 저로 하여금 그들이 큰 싸움, 믿음의 싸움을 통과했고 **승리**를 얻었음을 보게 하였습니다!

10) 이 무리는 승리, **그들의 승리**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!

11) 그들의 노래는 매우 아름다워서 저의 머리카락이 전율하였습니다. 그들 앞에서 저는 황홀하였습니다!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. “저는 제닝이고, 여러분 앞 여기에 있습니다.” 그러나 이 무리는 노래하고 있었고 그들의 온 힘을 다하여 노래하고 있었습니다.

12) 그들이 아직 노래하고 있었을 동안, 그 계시에서 저는 이 무리가 멀어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.

13) 그들과 함께 가기를 저는 얼마나 원했었는지요!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. 저는 그 무리를 바라보았고 그들은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.

14)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잔잔한 파도로 계속 물결치며 하나님의 영에 의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 계시에서 깨어났습니다.

15) 이 계시는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제가 그것을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.

No. 2 꿈과 계시

두 번째 계시

1) 땅에서의 안식일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. 저는 계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.

- 2) 한 사람이 제게 나타나 말했습니다. “두려워 말아라. 나는 너의 사자이다.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위해 그분을 만나도록 네가 하늘에 오기를 청하고 계신다.”
- 3) 이 천사가 제 손을 잡았고 저는 우리가 창공 아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
- 4) 그가 말했습니다. “두려워 말아라. 내가 너와 함께 있다.”
- 5) 저는 하늘이 아름다우며, 아름다운 푸른색, 여러 색으로 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. 수십억만 개의 별들이 어둔 밤에 빛나고 있었으며 창공에서 밝히고 있었습니다.
- 6) 저는 경탄했습니다!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! 영광! 영광!
- 7) 저의 사자가 제게 말했습니다. “우리는 도착한다. 보아라! **오리온** 회랑에 우리가 도착한다. 하늘문에 이르는 길이 여기에 있다.”
- 8) 큰 날개들을 가진 이 천사는 새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의 곁에 있었는데, 저는 서성거리고 있었고 그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
- 9) “보아라, **오리온** 회랑이다.”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.
- 10) 저는 우리가 넓은 회랑에 들어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. 하늘에는 수십억만 개의 별들이 있었습니다.
- 11) 그가 멈추더니 제게 말했습니다, “하늘을 바라보아라, 그것이 아름답다!”
- 12) 저는 그것을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,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!
- 13) 이 회랑을 통하여 우리는 현관에 이르렀습니다. 그 천사는 날고 있었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계시 속에 있었기에, 저는 그와 같이 행할 수 없었습니다.
- 14) 저는 이 회랑이 매우 아름다우며 별들이 가득한 것을 깨달았습니다. 얼마나 아름다웠는지! 얼마나 아름다웠는지!
- 15) 저는 별들이 그 회랑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랑 안쪽에 있음을 보았습니다. 이 현관은 매우 크고 광대합니다.
- 16) 하나님의 영광이 이 회랑에서 찬란하였고 하

- 프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. 그 회랑의 양편에는 - 저는 그것이 기념비처럼 보였다고 말하겠습니다 - 2 톤 정도는 되는 큰 돌들(운석)이 마치 사람의 손으로 그것들을 다 잘 배열하여 둔 것처럼 나란히 잘 배열되어 서있었습니다.
- 17) 양편에 돌들로 장식된 이 회랑은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. 저는 좀 추웠습니다. 그것들을 묘사할 말이 없지만, 저는 이 돌들에 경탄했습니다, 저는 경탄했습니다!
- 18) 제가 그것들 중 하나를 만지려 했고, 여기서는 “운석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돌들 중 하나에 제 손을 대기를 원했을 때, 그 천사가 제게 말했습니다. “안된다! 제가 그것들 중 하나를 만진다면, 너는 즉시 죽을 것이다.”
- 19) 저와 동행하던 천사는 자신의 큰 날개로 날고 있었고 이 돌들 사이를 지나며 그것들을 만졌습니다. 저는 그가 죽지 않음에 놀랐습니다.
- 20) 그 때에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. “너는 아직 승천하지 않았다. 너는 지금 여기에 올 수 없고 이 돌들을 만질 수도 없다.”

No. 3 꿈과 계시

- 1) 그것은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! 저는 황홀하였습니다. 날개를 펼친 이 천사는 영광으로 빛나는 이 회랑에서 새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. 그는 저를 두르고 있던 그의 날개들로 공기를 움직였습니다. 저는 외쳤습니다. “할렐루야! 영광! 영광!”
 - 2) 그가 내게로 와서 저의 손을 잡고 제게 말했습니다. “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.”
 - 3)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. 저는 우리가 찬란한 문에 이르렀음을 보았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, 저는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.
 - 4) 그 천사가 그 문 앞에 섰습니다. 그가 문을 두드렸고 그것이 열렸습니다. 저는 하늘 출입을 허
-
- 1) “그는[하나님] 홀로 하늘들을 펴시며 바다의 파도 위를 밟으시는도다. 그는 묘성과 알데바란과 오리온과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며” 욥9:8-9
 - 2) “그는 묘성과 오리온을 창조하셨고 깊은 흑암을 아침으로 바꾸며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며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다 붓는 이, 야훼, 영원하신 창조주가 그의 이름이라.” 암5:8

- 락받기 위해 금 카드를 내미는 것을 보았습니다.
- 5) 저는 하늘로 들어갔습니다.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! 저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었습니다. 자신의 금 하프를 든 천사들과 이십사 장로들이 참석하여 있었습니다. 찬양의 찬미들이 들렸습니다. 그것은 거대하였습니다! 천사들의 성가대가 있었습니다.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하였습니다. 그것은 영광이요 찬양이었습니다!
- 6) 그 후 이 천사가 저를 떠나갔습니다.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환영하시려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, “환영한다!” “여기에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있다.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. 여기에서 지금은 안식일이다.”
- 7) 제가 땅에서 계시 속으로 들어갔을 때, 그 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하늘에서 안식일 예배에 이르렀습니다.
- 8) 예수님께서 제 곁에 계셨습니다. 그분께서 제게 이십사 장로들을 소개시키셨고, 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.
- 9) 하프들... 얼마나 아름다웠는지! 하늘이 안식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숭배를 받으셨습니다.
- 10) 저를 맞이하셨을 때,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.

“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!”

- 11) 그것은 웅장하였습니다! 모든 성가대가 예수님 앞에서 숭배하였습니다.
- 12) 저는 절하였습니다. 얼마나 존경하였는지! 사랑받으시고 숭배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,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을 찬양하였습니다!
- 13)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과 이마, 상처난 그분의 옆구리에 있는 **십자가의 상처들**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. 그 상처들이 남아있었습니다.
- 14)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.

**“나는 하나님이다,
아버지, 아들, 성령, 같은 위 안에 있는 삼 위이다.”**

- 15) “너는 2)하나님,
우주의 영원하신 창조주를 보았다!”
- 16) 그 계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저의 사자를 오게 하시사, 제가 통과해 왔었던 이 같은 회랑으로 저를 다시 데려다 주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.
- 17)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. **“네가 신실하면,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, 성령의 지복 속에서 네가 여기에 오게 될 것이다.”**
- 18) 그분께서 그 말씀을 제게 되풀이 하셨습니다. **“네가 신실하면, 네가 144000과 함께 할 것이다.”**
- 19) 저는 이 말씀들을 잊지 않았습니다.
- “144000과 함께”**
- 20) 그 천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 계시에서 깨어났습니다.

제닝 소트룽

2) 그리스도의 신성과 베들레헴의 구유에 있는 무력한 아기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! 능하신 하나님과 무력한 아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어찌 짚 수 있겠는가? 세계들의 창조주이시며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느 분께서 구유 안의 무력한 아기 안에 나타나셨다. 천사들 중 어떤 이보다도 훨씬 더 높으시고, 존엄과 영광에 있어 아버지와 동등하시면서도 인성의 옷을 입으시었다! 신성과 인성이 신비하게 결합되었고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. 이 결합 안에서 우리는 타락한 우리 인류의 소망을 발견하다.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,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의 광채,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을 본다. {영문시조 1896, 7, 30, par 3}